

호남 출신 軍 장성 진급 ‘하늘의 별 따기’

육·해·공 참모총장 등 대장 8명 중 한 명도 없어

김동철 의원 국방부 업무보고서 ‘영남 편중’ 지적

장성급(軍) 인사에서도 영남 편중, 호남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 장성급 가운데 합참의장과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8명 중 서울 출신과 충청 출신이 각각 3명, 영남 출신은 2명이었다.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지난해 9월 단행된 군 인사에서 3군 사관학교 출신 인사가 합참의장에 임명되는 것을 비롯, 대장급 8자리 가운데 해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이 교체, 승진됐지만,

호남 출신이 한명도 대장에 발탁되지 않으면서 ‘호남 홀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철저히 소외됐다. 중장 진급자 2명은 경남과 경북 출신이었고,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이 된 8명 가운데 5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서울·인천·강원 출신은 각 1명씩이었다. 해군도 소장 진급이 2명 있었지만, 부산과 강원 출신이었다. 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장성 인사에서도 육군

의 경우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이 된 10명 중 6명이 영남 출신이었고, 전남 출신은 1명에 불과해 군의 영남 편중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4월 국회 국방위에 서도 인사편중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1년 후에도 인사편중이 더 악화돼 호남출신은 씨가 마르고 있다”면서 “특정 인사 시기에 우연히 특정 지역출신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정 지역과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장성 인사의 ‘호남 홀대’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인사는 영남 편중, 호남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12명 중 6명(50%), 국무위원 20명 중에 7명(35%)이 영남 출신인데 반해 호남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단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감사원장, 국제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차관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41명(23%)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24명(16%), 박근혜 정부 15명(15%) 등으로 줄었다. 경찰 인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찰청 인사를 분석해 보면 영남출신 경무관 승진자는 12명으로 호남출신 3명보다 4배가 많았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1920년대 지어진 광주 남구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 전경. 광주에 현존하는 서양식 주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광주시 남구청 제공>

독립영화 ‘양림동’

‘댄서의 순정’ 정성현 감독 내달 2일부터 촬영

근대역사문화의 보고(寶庫)로 잘 알려진 광주 남구 양림동을 배경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된다. 광주 남구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장우 가족, 수피아여고, 다형다방, 선교사 사택 등 양림동 일원에서 영화 ‘양림동’ 현지 촬영이 진행된다. 양림동 근대 건축물인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이장우 가족, 양림산 선교교, 사직공원, 평민골목 등 촬영장소를 제공하고 차량 및 도로통제를 지원한다. 영화 ‘양림동’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6회 굿모닝 양림 축제에서 광주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도 밴쿠버 국제영화제와 북경 국제영화제, 후쿠오카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된다. 남구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남구의 자랑거리인 양림동을 다룬 영화인 만큼 촬영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영화를 통해 양림동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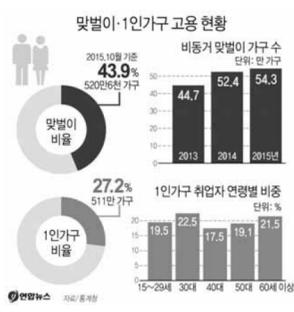


1237번째 수요집회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3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이용수(왼쪽부터)·김원옥·김복동 할머니가 햇빛가리개가 달린 의자에 앉아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인 가구 500만 시대... 절반 미취업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지난해 10월 511만...3.5%↑
혁신도시 영향 맞벌이 기러기 ↑
전남 맞벌이 비율 ‘전국 2위’



1인 가구가 5년여 만에 100만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5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1인 가구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영향으로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인 가구 500만 돌파...절반은 미취업>=2010년 기준 414만 가구였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500만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로 전년(493만 가구)보다 17만1000 가구(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전체(1877만6000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5%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과 견줘 전체 가구는 1.3% 늘었지만 1인 가구가 3.5%로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284만3000 가구였다. 전체 1인 가구의 절반(48.6%) 정도만이 일자리를 가진 셈이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증가세...전년보다 3.7%↑>=지난해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85만8000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만여명 늘어난 520만6000

가구(43.9%)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2013년 42.9%에서 2014년 43.9%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큰 폭으로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4만7000가구였던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는 매년 늘어난 2014년 52만4000가구에 달했고 2015년엔 54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전체 맞벌이 가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탓에 전체 가구 중 비율도 3.8%→4.4%→4.6%로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직장이 이전하면서 비동거 맞벌이 가구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것이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제주 지역 맞벌이 비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전남(58.4%), 충북(53.8%) 등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비율이 42.2%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비율도 낮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위원회 여성 참여율 22.6% ‘전국 꼴찌’

전남도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22.6%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29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도와 각 시·군 등 23개 광역·기초단체 실국별 위원회(1411건) 전체위원 수는 모두 1만4357명으로 이중 여성위원 수는 전체의 22.6%인 3239명이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로, 이는 전국 평균 30.1%보다 7.5%p 낮은 수치다. 광주시는 여성위원 참여율이 31.7%로 5위를 차지했다. 광주엔 42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위원 수는 4599명이며 이중 여성위원 수는 1457명이다. 광주시의 경우 비율은 따졌을 때 전국 상위권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인권 도시 및 여성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광역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면을 구긴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전남지역 각 시군별 여성위원 참여율이 최대 2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위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기초단체는 무안으로 11.1%(505명 중 56명)에 불과했다. 이어 ▲함평 14.9%(422명 중 63명) ▲장흥 17.2%(453명 78명) ▲나주 17.6%(598명 중 105명) ▲진도 18.0%(283명 중 51명) 등의 순이다. 반면 여성위원 참여율이 높은 기초단체는 31.4%(697명 중 219명)를 기록한 담양이었다. /이종희기자 golee@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외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인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학 용역사업 자재한 안내물 우송하여 드립니다.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방 상업지역/6차선 도로 접/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010-8829-6876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담양군 대덕면 2층전원주택 건물 56평 토지 262평 주변환경양호 건물상대최상 ▶ 감정가 2억 최저가 2억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전입가능 창고상대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0평 토지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서구 송촌동 2층단독주택 건물 62평 토지 55평 위치좋은 한국병원인근 ▶ 감정가 1억5천 최저가 1억1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적합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